

설명자료

배포일시	2020. 2. 14.(금) 12:30 (총 4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예 보 과	담당자	과장 유근기 사무관 활영하
		전화번호	062-720-0353

16일~18일 “많은 눈” 과 “강풍” - 16일 새벽부터 날씨 빠르게 나빠져 -

- 16~18일 많은 눈, 빙판길 조심, 대설특보 가능성
 - 16일 아침에 대부분 비, 전남 북부지역 비 또는 눈
 - 16일 밤~17일 오전, 서해안과 내륙 대설특보 가능성
- 기온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 강해 체감온도 뚝
 - 나들이, 산행 등 야외활동에 유의, 냉해피해 주의
- 16~17일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전해상 최대 5m 높은 물결



[2월 17일 새벽]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

[15일 밤~16일 오전 비/눈 전망]

- 15일 밤,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의 영향으로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고, 16일(일) 새벽에는 전지역으로 확대된 후,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.
 - 16일 아침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장성, 담양, 영광 등 전남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, 안전사고 유의 및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.

[16일 밤~18일 눈 전망]

- 16일 오후~17일은 대기 하층 1.5km 부근의 영하 12도 이하의 차가운 공기가 서해상으로 진출하면서 해기차에 의해 눈구름대가 발달하겠습니다. 이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광주와 전라남도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.
 - 특히, 16일 밤~17일 오전, 최고 20cm 내외의 많은 눈이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되는 곳이 있겠으나, 출근길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.
 - (변동성) 17일 오전에 서풍이 강해질 경우, 눈 구름대가 유입되는 지역이 내륙으로 확대되어 많은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으니, 향후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 - ※ 이번 눈은 18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으나, 향후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- (유의사항) 16~17일은 비가 눈으로 바뀌고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노면이 얼어붙어 빙판길이 우려되고, 기상변화로 인해 주변 환경이 매우 빠르게 달라지기 때문에 주말 야외활동(나들이, 산행 등)이나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[추위 전망]

- 16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빠르게 남하하는 찬 공기로 인해 낮기온이 전날보다 10도 가량 급격히 떨어지겠고, 19일까지 추위가 지속될 것입니다.
 - 특히, 17일부터는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있겠고,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. 이후 19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부근까지 낮게 형성되므로 한랭질환, 수도관 동파 등 건강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대비하기 바랍니다.
 - 이번 주(10~14일) 동안 평년보다 따뜻한 기온 분포를 보인 상태에서 16일 오후~19일 오전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체감하는 추위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니,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한편, 20일부터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을 회복하겠고, 주말은 낮 최고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올라 포근하겠습니다.

[강풍 및 풍랑 전망]

- (강풍) 16일~18일에 해안을 중심으로 시속 35~60km(초속 10~16m)의 강한 바람, 내륙에서도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,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랍니다.

- (풍랑) 15일 오후 서해남부먼바다를 시작으로, 16일~17일은 서해 남부와 남해서부 전해상에서 바람이 35~65km/h(10~18m/s)로 매우 강하게 불고, 물결도 2~5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,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기 바랍니다. 이번 풍랑은 18일 오전부터 1~3m로 점차 약화될 것입니다.